

현대 기독교 예배음악의 실천신학적 성찰을 통한 예배무용의 방향 모색

요약문

이신영 명지대 객원교수

요 약

20세기 후반 이후 기독교 예배는 전례적 안정성보다 문화적 적실성과 참여 경험, 감성 호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왔다. 현대 기독교 예배는 더 이상 전통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문화, 신체성, 감각 경험, 기술, 그리고 신학이 교차하는 복합적 실천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예배 음악은 오늘날 예배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보조 요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가장 가시적이며 신앙 경험과 공동체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예배의 요소로 평가되고 있으며, 예배 갱신에서 음악은 예배 구조와 예배자들의 참여 방식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주종훈, 2022). 이러한 변화가 언제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예배음악관련 선행연구들은 음악 중심의 예배가 예배자들의 감정적 몰입과 즉각적 참여를 강화하는 반면, 예배의 대화 구조, 성례적 균형, 공동체적 형성이라는 전통적 예배의 핵심 가치들을 약화시킬 위험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대 예배 음악이 문화 수용과 감정적 경험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예배가 신앙 형성의 장이 아니라 소비되는 종교 경험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예배음악과 예배무용은 단순한 공연적 요소가 아니라 예배의 전인적 참여의 실천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대 예배와 음악의 관계를 실천신학적 관점에서 선성찰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현대 예배안에서 핵심 도구로 사용되는 음악 뿐만 아니라 예전적 움직임으로써 예배무용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현대 기독교 예배에서 음악은 예배 구조와 예배자 참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둘째, 현대 음악중심 예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셋째, 음악 중심 예배가 지향해야 할 신학적 기준을 통해 예배무용이 나아가 할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현대 예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배가 더 이상 초문화적·비역사적 형식으로 이해되지 않고, 구체적인 시대·문화·세대의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실천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예배가 단지 문화적 요소를 차용하는 차원을 넘어, 문화 자체가 예배의 형식과 구조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주종훈, 2021). 이 과정에서 예배는 특정 세대와 집단의 언어, 감수성, 미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으며, 특히 청년 세대와 비기독교인을 염두에 둔 ‘접근 가능한 예배’가 강조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선교적 차원에서는 긍정적 성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예배의 보편성과 신학적 규범성에 대한 질문을 야기했다. 현대 예배는 전통적 예배에서 두드러졌던 성직자 중심 구조를

완화하고, 회중의 적극적·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또한 현대 예배는 시각·청각·신체 감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배 경험을 ‘즉각적이고 몰입적인 사건’으로 구성되어 예배를 ‘지속적 신앙 형성의 과정’이 아니라 ‘강렬한 순간의 체험’으로 축소할 위험을 내포하게 되었다.

현대 예배에서 음악은 더 이상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예배 전체의 구조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찬양이 예배 시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며, 설교 이전에 이미 예배의 정서적 방향성이 결정되는 경우도 많다. 이는 설교와 성례 중심의 전통적 예배 구조가 음악 중심 구조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현대 예배 음악은 대체로 단순한 화성, 제한된 음역, 반복적 가사를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는 회중의 빠른 습득과 몰입을 가능하게 하지만, 신학적 언어의 다양성과 깊이를 제한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성례전성(sacramentality)은 말씀과 성찬을 통해 경험되었으나 현대 예배에서는 음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개하는 주요 통로로 인식되면서, 성례전적 기능이 음악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례전성은 특정 요소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성찬·기도·음악이 함께 구성하는 총체적 경험이어야 한다. 주종훈(2022)은 예배 음악을 삶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음악이 예배자들의 정체성과 상상력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그러나 예배음악에서 반복되는 동일한 신학 언어, 승리·축복 중심 가사는 예배자의 신앙을 특정 정서와 세계관에 고정시킬 위험이 있다.

현대 예배 음악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음악의 사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예배 전체를 대체하거나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다. 조기연(2011)은 음악이 예배를 “섬기기 위한 도구”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오용 사례를 지적한다. 첫째, 형식적 시간 채우기로써 예배 시작 전 시간 끌기용 찬송의 사용이다. 이러한 불필요한 반복이나 생략은 예배의 의미를 약화시킨다. 둘째, 심리적 조작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예배음악 즉 감정적 고양을 유도하기 위한 음악은 예배를 인위적으로 만든다. 셋째, ‘풍성함’으로써 은혜를 조명·악기·합창을 통한 외적 화려함, 풍성함으로써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는 본질적 영성의 대체물이 될 수 없다. 넷째, 예배의 관중화로써 회중을 ‘청중’으로 전락시키는 구조로 사용한다. 즉 성가대나 설교 중심의 일방향 예배는 예배의 본질과 어긋난다. 음악이 예배의 흐름을 지배할 때, 회중은 응답하는 주체라기보다 감정에 몰입하는 소비자가 될 가능성이 커진다. 물론 음악을 통한 감정적 몰입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신앙의 성찰과 삶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발생한다. 반복적이고 즉각적인 감정 경험에 의존하는 예배는 예배 이후의 삶과 분리된 종교적 이벤트로 남을 위험이 있다.

본 연구는 현대 예배와 음악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며, 음악 중심 예배가 지닌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였다. 현대 예배 음악은 회중의 참여를 확장하고 문화적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음악이 예배의 중심 원리로 작동할 때, 예배는 성례적

균형과 신학적 깊이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대 예배 음악은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공동체적 응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예배의 총체적 구조 안에서 재위치화될 필요가 있다. 음악은 예배를 이끌고 돕는 수단이지만, 예배 자체를 대체하는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현대 예배의 갱신은 음악을 배제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포함한 예배 전체의 신학적 재정렬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 교회는 이러한 논의들을 단순한 비판으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어떤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한다. 음악과 예전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음악은 예전의 신학적 논리와 질서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예전음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신자를 거룩하게 하며, 말씀의 선포와 공동체의 연합을 강화하고, 회중의 참여와 문화적 선을 고양시킨다(조기연, 2011). 예배는 ‘명사’가 아닌 ‘동사’,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인간의 능동적 응답이다. 음악은 이 응답의 구체적 형태로서, 회중의 찬송이야말로 공동체적이며 인격적인 신앙고백이 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음악 중심 예배는 감정적 몰입, 성례성 약화, 예배의 소비화, 공동체성 약화라는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한계는 음악에서 뿐만아니라 예전적 움직임(예배무용)을 새롭게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예배는 단지 생각이나 언어로만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몸을 통해 참여하는 신앙 행위이며 예배자는 음악을 듣고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몸을 통해 신앙을 표현한다. 몸짓과 자세는 단순한 외적 형식이 아니라 신앙을 체현하는 예배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예배무용은 단순히 음악의 확장된 표현이 아니라 몸을 통한 전인적 예배 참여이며, 성육신 신앙과 삼위일체적 예배 안에서 신학적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즉 성육신, 삼위일체, 몸의 신학에 근거해야 하며 예배 안에서 말씀·성찬·기도·음악과 함께 구성되는 총체적 경험으로써 예술성보다는 예배성을 우선해야 한다. 또한 개인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회중의 응답이 되어야 하며 공연 이벤트적 감각적 효과를 넘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야 한다. 조기연(2011)이 찬양을 “모든 회중의 중심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라고 한 것처럼, 예배 안의 예전적 요소들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하며 예배자를 찬양과 움직임을 통해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끌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단순함, 소박함, 통합성, 참여성’과 같은 키워드들이 예배무용의 지향해야할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예배음악, 예배무용, 예전적 움직임, 현대 예배, 예배의 본질

논찬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현대 기독교 예배음악의 실천신학적 성찰을 통한 예배무용의 방향 모색	발표자	이신영
		논찬자 (소속)	안비화 (안양시립예술단 상임안무자)

「현대기독교 예배음악의 실천신학적 성찰을 통한 예배무용의 방향모색」은 현대 기독교 예배음악의 변화와 그 신학적 쟁점을 단순한 찬반 논의로 다루지 않고, 예배무용의 방향성까지 확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된다. 특히 음악 중심 예배가 지닌 긍정적 가능성, 즉 회중 참여의 확대, 문화적 소통, 감각적 몰입의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성례성 약화, 예배의 소비화, 감정 중심성, 공동체성 약화라는 한계를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또한 본 연구는 예배무용을 단순한 공연이나 음악의 시각적 보조 수단으로 보지 않고, 몸을 통한 전인적 예배 참여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예배무용을 성육신 신앙, 삼위일체적 예배, 몸의 신학 안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는 예배무용의 신학적 정당성과 실천적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중요한 접근이다.

특히 마지막에 제시된 ‘단순함, 소박함, 통합성, 참여성’이라는 기준은 예배무용이 예술적 완성도만을 추구하는 공연이 아니라, 회중의 신앙고백과 공동체적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교회 예배 안에서 음악 및 움직임이 예전적 요소로써 어떤 방식으로 신학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게 하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한편, 이 연구는 현대 기독교 예배음악에 대한 실천신학적 성찰을 예배무용의 방향성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주로 문헌적·이론적 논의에 머물러 있으며, 실제 교회 예배 현장에서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즉 한국 교회의 청년예배, 찬양집회, 대형교회 예배, 전통예배, 예배무용이 포함된 특별예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연구자가 경험한 예배무용의 실제 현장의 사례 및 경험을 몇가지 공유해주면 좋겠다.

이를 기반으로 아래의 3가지 내용에 대한 연구자의 설명을 듣고 싶다.

현대 예배에서 음악과 예배무용이 회중의 감정적 몰입을 돕는 긍정적 역할을 하면서도, 동시에 현대 예배음악이 예배를 지배하거나 소비화할 위험이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 교회 안에서 이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배 사례나 관찰 자료가 있는가?

예배무용이 “음악의 확장된 표현이 아니다”라는 말은 신학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주장이라 생각한다. 예배무용이 음악의 확장된 표현이 아니라면, 예배 안에서 예배무용은 어떤 독자적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가?

예배무용이 개인의 표현이나 무대 중심의 공연이 아니라 공동체적 응답이 되기 위해, 실제 예배 현장에서 회중 참여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